

|                                                                                                                           |                                                                                                                                           |                                                                                                                                               |
|---------------------------------------------------------------------------------------------------------------------------|-------------------------------------------------------------------------------------------------------------------------------------------|-----------------------------------------------------------------------------------------------------------------------------------------------|
| <b>리버데일 한의원</b><br>한의사 : 임 페로니카<br>3263 Johnson Ave.<br>Bronx, NY 10463<br>(718)796-0267/ 3636                            | <b>백 한의원</b><br>한의사 : 김 글라라<br>침, 한약으로 만성병치료<br>224E 204St Bronx<br>(718) 563-1209                                                        | <b>이 준 승 치과</b><br>Medicaid Accepted<br>503 S Broadway #250<br>Yonkers NY 10705<br>(914) 376-4033                                             |
| <b>뉴저지 동해수산</b><br>EastSeafood Restarant<br>445 Grand Ave<br>PalisadsPark, NJ07650<br>Tel 201-461-4447                    | <b>뉴욕라이프보험</b><br>김 여경(헤레나)<br>(203) 629-0266(O)<br>각종 보험, 투자                                                                             | <b>리사 휴대폰</b><br>국내무제한, 한국5시간<br>월40\$ (세금포함)<br>(718)205-1200 Kim                                                                            |
| <b>중앙 장의사</b><br><b>하 봉 호</b><br>(718) 353-2424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br><b>Century 21 Royal</b><br>부동산 Sales, Rental<br>Mija (세실리아) Son<br>(914)310-6990(C)                                         | <b>C2 EDUCATION</b><br>수시등록 가능 대상 : K-12<br>142 N Central Ave<br>914 946-2324 573-6706                                                        |
| <b>COMMUNITY PAIN MEDICINE</b><br><b>신경 차단술</b><br>요통 허리 디스크 및 각종통증<br><b>(718) 224-1600</b><br>140-21 32 Ave Flushing NY | <b>아리랑 여행사</b><br>ARIRANG TRAVEL SERVICE<br>INC. 표 : 김 윤 환(Francisco)<br>영 희(Julie)<br>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22층<br>1-212-563-3350<br>1-800-223-6225 | <b>김태복 통증 한의원</b><br>통증 전문 39 W 32 St.<br>Suite300 맨하탄 (212)<br>947-8382(B) 뉴저지(201)<br>592-5514(H)                                           |
| Edward D Jamis, Jr<br><b>장 의 사</b><br>조용하고 차차, 교통원리<br>페이지트 노턴 209가<br><b>(718) 224-2390</b><br><b>(888) 224-6088</b>     | <b>정일연(스테파노)치과</b><br>코스타리카 자과대학교 졸업<br>알라바마주(시애틀)에<br><b>(718)426-4343, (주지문비)</b><br>베이사이드 718-352-3434                                 | <b>HOPE AGENCY INC.</b><br>희망 보험사<br>가계, 빌링, 주택, 자동차<br>트럭, 벨, 생명, 교육, 은퇴<br>(718) 961-5000 김 모세                                              |
| <b>ADSG 치과</b><br><b>50세 이상 초진 무료</b><br>7 Sylvan Ave.<br>Englewood Cliffs<br>201-301-3909<br><b>손영준 아브라함</b>             | <b>김진상 3S 교정치과</b><br>아동 및 성인 교정 전문<br>◎ 뉴욕, 플러싱 : (718) 460-1802<br>◎ 북부 NJ : (201) 840-1123<br>◎ 중부 NJ : (732) 548-4848<br>김 진상 (빈센트)   | <b>김철 공인 회계사</b><br><b>Young &amp; Julian, LLC</b><br>150-05 노턴 (150가)<br>2F1 (플러싱)<br><b>(718) 888-1217</b>                                  |
| <b>컴퓨터 출장수리</b><br>감시카메라/인터넷<br>전학설치/수리<br>이홍석(사도요한)<br>(201) 336-2522                                                    | <b>핑크 미용실</b><br>매주 일요일(주일)은 쉽니다.<br>3135 Grand Concourse<br>(between 204 & 205 St.)<br>Tel. (718) 563-6997                               | <b>한미 가톨릭 연방 신용조합</b><br>월-금 8:00 AM-4:30 PM<br>토 3:00 PM-8:00 PM<br>일 9:00 AM-2:00 PM<br>(718)353-7676<br>144-19 33rd Ave Flushing, NY 11354 |

제1698호

2012, 1, 22

# 북 부 뉴 욕

## 성 남요한 한인 가톨릭교회

### Korean R.C. Church of St. John Nam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마르1,14-20)

주임 신부 : 남 시몬(해근)  
 부주임신부 : 이 안드레아(환규)  
 본당 수녀 : 김 소피아(마리아)

#### 교회 시간표

주일 미사 : 오전 8시, 11시(본미사), 12시 30분(학생미사)  
 평일 미사 : 매일 오전 9시, 수요일 오후 8시  
 고백 성사 : 주일 11시 미사 전.후  
 주일 학교 : 주일 오전 11시  
 한글 학교 : 주일 오전 10시  
 예비자교리 : 주일 오전 9시 30분  
 병자봉성체 : 매월 첫 금요일  
 유아 영세 : 매월 둘째 토요일(한달전 신청)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  
 사무실 : (718) 231-2414 수녀님 : (914) 265-0117  
 회 장 : (914) 434-7084 F a x : (718) 405-0053



## 연중 제3주일

### ㉔ 입당송

(시편 96(95),1,6)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대영광송>

### ㉔ 제1독서

(니네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

요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1-5,10)

- 1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2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3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4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5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  
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10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㉔ 화답송 (시편 25(24),4-5ㄴ,6과 7ㄴ,8-9(● 4ㄱ))

####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소서.

1.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2.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3.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㉔ 제2독서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7,29-31)

- 29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30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처럼, 31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㉔ 복음 환호송

(마르 1,15)

####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㉔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4-20)

- 1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15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6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18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19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20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  
를 샅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경>

### ㉔ 영성체송

(시편 34(33),6)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 없으리라.

## 진례

|         | 미사해설 | 제1독서 | 제2독서 | 신자기도 |
|---------|------|------|------|------|
| 1/22 8시 | 김철중  | 함봉국  | 함경옥  | 김미수  |
| 11시     | 최일환  | 이경태  | 이은미  | 최금연  |
| 1/29 8시 | 홍승표  | 김민환  | 김정옥  | 홍명숙  |
| 11시     | 민경구  | 양명상  | 양정남  | 손속   |

복사 : 조중훈&박지성 안정훈&김도근

봉헌자 : 김여철&윤구식 가족 다음주 : 김광수&이상빈 가족

헌금봉사 : 자비의 모후 Pr 다음주 : 정의의 거울 Pr

운전봉사 : 박지현 다음주 : 방문덕

본당 밴 운행시간 : Yonkers 노인 아파트 앞 (1호차 - 9 : 00 출발)

Grand Concourse (옛 성당 건너편) - 9 : 00 출발

## 주간미사 신청하신 분들

본당신부님(생미사) : 김사무엘[여철] 가족봉헌

부주임신부님(생미사) : 김사무엘[여철] 가족봉헌

수녀님(생미사) : 김사무엘[여철] 가족봉헌

감사미사 : 전패트릭[영달] 가족봉헌

추바오로[성태](가정미사) : 김사무엘[여철] 가족봉헌

천토마스(가정미사) : 어머니 봉헌

김프란치스코[윤환](생미사) : 이데니스[창섭] 봉헌

유데레사[영애](생미사) : 은총의 중재자 Pr 봉헌

최안나[광자](생미사) : 김요셉[만석]가족, 김다니엘라[정옥],  
이엘리자벳[정복] 가족봉헌

김안나[경임](생미사) : 윤포카스 봉헌

이태석신부님(연미사) : 유데레사[영애] 봉헌

윤요셉[진섭](연미사) : 윤안토니오[기운] 봉헌

조상님(연미사) : 양스테파노 가족봉헌

김준식, 정원일(연미사) : 김리디아[현정] 봉헌

윤멜리디나[옥순](연미사) : 김리디아[현정] 봉헌

한복돌, 윤성철(연미사) : 한빅토리아[성천] 봉헌

이근배(연미사) : 한프란치스카[희자] 봉헌

조상님, 부모님(연미사) : 원크리스티나 가족봉헌

모친 기일(연미사) : 정미카엘[진웅] 봉헌

우요셉, 이마리아[한이](연미사) : 신아네스 가족봉헌

부모님(연미사) : 신아네스 가족봉헌

조상님(연미사) : 추바오로[성태] 가족봉헌

부모님(연미사) : 김수산나[기자] 봉헌

최율리에따[정자](연미사) : 박이사벨라[은영] 봉헌

조상님(연미사) : 박스테파노[세복] 봉헌

조상님(연미사) : 정수산나[희숙] 봉헌

불쌍한 연옥영혼(연미사) : 박스테파노[세복] 봉헌

윤요셉, 원마리아(연미사) : 윤안토니오[기운] 봉헌

윤기선(연미사) : 윤안토니오[기운] 봉헌

민필립보(연미사) : 윤안토니오[기운] 봉헌

부모님(연미사) : 윤포카스 봉헌

장비리시다(연미사) : 윤포카스 봉헌

설 조상님(연미사) : 박바오로[증환] 가족봉헌

김그레이스[혜숙](연미사) : 손로라[승원] 봉헌

손로마노[종만](연미사) : 손로라[승원] 봉헌

조상님(연미사) : 신베드로[대철] 가족봉헌

박안젤모[기용](연미사) : 신베드로[대철] 가족봉헌

## 성가

입당 : 찬미의 송가 (성가 431)

봉헌 : 주여 우리는 지금 (성가 512)

성체 : 주의 사랑 전하리 (성가 179)

파견 : 주 예수 따르기로 (성가 29)

## 교회 소식



### (1) 예비자 교리반 시작

새 예비자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활동이 복음전도입니다.

### (2) 민속의 날 행사

오늘은 민속의 날(구정)입니다. 아름다운 우리민속을 다함께 즐기고 나누도록 합시다. 11시미사후 떡국을 드신 후 다양한 음식과 게임 (구역별 떡 썰기, 윷놀이, 팔씨름대회, 한복경연대회, 퍼팅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3) 초 축성

2월 첫 주 는 주의 봉헌축일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성합니다.  
초를 미사 전에 제대 앞에 봉헌하여 축성 후 가져가시면 됩니다.

### (4) 혼배 갱신식

2월5일(주일)에 혼인갱신식이 있습니다.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지  
않으신분, 결혼 10주년, 15주년, 20주년, 25주년 되시는분 그 외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반지)

### (5) 2012년 교구청(Stewardship Appeal)

2012년 교구청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당 뒷편 교구봉투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의 한달 분)

### (6) 신임 회장단 발표

회장 : 정 아오스팅(복기)

수석 부회장 : 김 베드로(부균) 부회장 : 한 빅토리노(성천)

수석 총무 : 양 리카드로(경식) 총 무 : 이 클레멘스(준섭)

그동안 수고해 주신 회장 문 요셉(민영) 총무 노 베드로(경수),

박 요한(중복)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 (7) 본당 모임

- 꾸리아 월례회의가 29일(주일) 11시미사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동부브롱스 구역회가 29일(주일) 오후2시 손로렌조 (917) 251-7481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 서부웨체스터 구역회가 29일(주일) 저녁6시30분 김 재찬 형제님  
주최로 강서회관에서 있습니다.
- 연령회 모임이 29일(주일) 12시30분 센타102호실에서 있습니다.
- \* 이번달(1월) 커피 및 친 교실 청소는 서부 웨체스터 구역입니다.

####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 \$2,056.00 피정 헌금 : \$264.00.00

교 무 금 : \$2,230.00

2011: 김상태(완)

2012: 안장환(1-2) 송계인(완) 조한구(1-6) 강순연(1)

손달구(1-6) 방은엽(1-6) 이갑조(1) : 유휴현(1)

한경수(1) 김대현(1-6) 박영숙(1)

교구청 기금 : \$410.00 누계 : \$670.00

박우복 송계인 조한구 김대현 김문자 이창섭

유휴현 서명희

#### 브롱스에 보내는 편지

제가 브롱스를 떠나올 때는 여름을 갓 지났을 때였는데 벌써 겨울이 되었습니다.  
떠나올 때 그 동안 저에게 많은 사랑 베풀어 주신 어르신들께 인사를 다 차리  
지도 못하고 온 것이 얼마나 마음에 걸리던지요.

이 편지로 죄송하다는 말씀과 인사를 여쭙니다. 그 동안 저는 십일 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나름 용쓰고 산 저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의미로 우리나라  
전역을 여행하고 다녔습니다. 작지만 갖가지 모습을 갖춘 산과 그 산에 이어진  
조그만 논 밭,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에 까지도 저의 그리움이 다 담겨있어  
얼마나 정겹고 아름답던지요. 단풍 물든 산에 올라도, 작은 섬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때도 가는 곳마다, 지나는 경치마다 하느님 솜씨에  
경탄과 감사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행 덕에 여러 곳의 성당에서 미사참례를 하면서, 세례 받을 때 부터 피정  
외는 다른 성당을 가 본 일이 없는 저는 자신도 모르게 차꾸 브롱스 성당과  
비교를 해 분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톨릭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미사전례는 같지만 조금 간결하다는 느낌이 드는 곳도 있었고,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많은 성당이 장케대가 없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할 것 없는 문제이지만 저는 하느님 앞에 꿇어앉는 행동이 우리를 낮추는  
행위의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이 또한 브롱스 성당에서의 습관일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당에서는 주일미사 시작 전에 전례봉사자의 인도로  
갖가지 기도를 하거나 어떤 성당은 그날 봉독할 말씀들을 함께 읽는 곳도  
있었는데 거룩한 미사를 준비하는 참으로 좋은 방법이구나 싶었습니다.

미사 중 사소한 것에 마음이 팔려 매 미사마다 분심이 들어 내심 걱정을 하는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제가 적을 두게 될 성당을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  
하던지요. 미사도, 미사곡도 브롱스성당 과 흡사하고 거기다 장케대까지 있어  
모처럼 분심 없고 기쁜 마음으로 미사참례하면서 "모든 것을아시는 하느님!"  
하며 감사와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해가 되고 삼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비천한 인간이 되시어 오십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빈손으로 세상에 보낸 이유는 누구나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느님이 인간을 빈손으로  
저 세상에 데려 가는 까닭은 한평생 얻어낸 그 많은 것 중에 천국으로 가지고  
갈만한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미사 때 마다 저도 사랑으로 살면서 하느님께 받은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통해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써주시기를 빌고 또 브롱스 성당과  
모든 교우님들을 위해 기도 합니다.

이 카리나 (상자)